

김윤진 연구원

## 요약

미국 기업들이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규모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생체인식정보 침해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일리노이주 BIPA 위반 혐의 관련 최근 재판 결과,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와 보상금 청구 시효가 확대됨. 이에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업보험 내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등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따른 위험 보장을 축소하는 추세임

- 생체인식정보의 높은 편리성·활용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한편, 생체인식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생체정보란 개인을 다른 누군가와 구분 짓는 신체적·행동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sup>1)</sup> 생체인식정보는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의미함
    - 생체인식정보는 다시 원본정보와 특징정보로 구분되는데 입력 장치 등을 통해 수집된 것을 원본정보라 하며, 이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된 것이 특징정보임
  - 최근 생체인식정보는 신분 확인, 직원의 근무시간 기록, 테크 기업 및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으로 데이터 정확성, 보안, 고객 경험이 개선됨과 함께 사기행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의 생체인식정보 유출, 도용, 범죄 악용 등 개인의 고유 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일부 주에는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생체인식정보가 활발하게 사용된 시기부터 미국 기반 글로벌 기업의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이용자의 집단 소송이 증가함<sup>2)</sup>
  - 2022년 말 기준 미국 10개 주에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sup>3)</sup> 해당 법률의 목적은 기업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 사용, 저장에 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생체인식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이외 다른 주에서도 지난해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개인의 생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보임

1) 신체적 생체정보로는 지문, DNA, 얼굴인식 등이 있으며, 행동적 생체정보로는 제스처, 목소리, 걸음걸이, 필적 등이 있음

2) Gen Re(2023. 4),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 Statutes, Claims and Litigation"

3) 3개 주(Illinois, Texas, Washington)에는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를 특정한 구체적 법률(Specific biometric privacy laws)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주에서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법령(General privacy statutes)에 생체인식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태임

- 2008년 일리노이주에서 통과된 미국 최초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인 ‘BIPA(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는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서면고지, 생체정보 판매금지, 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와 고소할 권리, 법률적 배상 등 규제 기준을 제시함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BIPA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약 2천 건의 민사 집단 소송이 개시되었고, BIPA 위반으로 제소된 미국 기반 글로벌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대규모 보상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합의하는 사례들이 발생함
    - Google(1억 달러, 얼굴인식), Facebook(6억 달러, 얼굴인식), Tiktok(9천만 달러, 비디오 캡처 생체인식 정보) 등이 있음
- 2023년 선고된 BIPA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업이 배상할 손해(Damages) 규모와 보험회사에 보상금(Claims)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sup>4)</sup>
- 외식업체 White Castle은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반복 수집한 혐의로 제소되었고, 해당 재판의 결과는 생체인식 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잠재적 손해배상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sup>5)</sup>
    - 생체인식 정보 보호법 위반의 기준을 기존에는 사람 수로 보았으나 본 판결에서는 스캔·수집된 정보의 누적 건수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부주의로 인한 위반에 건당 1천 달러, 고의에 의한 위반에는 건당 5천 달러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White Castle은 그들이 약 170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함
  - 유통운송업체 Black Horse Carriers 또한 기존 직원들의 지문정보 저장, 폐기, 사전 동의 및 제3자에게 생체인식 정보 제공 등의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고,<sup>6)</sup> 재판 결과 기업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Statute of limitations applicable to BIPA claims)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위와 같은 판결을 근거로 이용자의 집단 소송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미국 보험회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기업보험 내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관련 손해배상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등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추세임<sup>7)</sup>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단 소송 건수와 손해배상액 규모 이외에도, 일리노이주 대부분의 판결에서 생체인식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기업)에게 반드시 보장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기업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의 부담이 증가함
  - 이에 보험회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등 기업보험 내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면책조항을 추가하고,<sup>8)</sup> 관련 위험인수 기준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체인식정보 보호 관련 손해배상 규모 증가와 보험회사 보장 축소 추세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체인식 개인정보 침해로 야기되는 사회적 피해 수준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과 보험회사 간 손해배상 부담 분배에 대한 법률적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함

4) Lexology(2023. 3), “Key considerations for policyholders after landmark biometric privacy decisions reshape insurance landscape”

5) Reuters(2023. 2), “White Castle could face multibillion-dollar judgment in Illinois privacy lawsuit”

6) JOROME TIMS et al., Appellees, v. BLACK HORSE CARRIERS, INC., Appellant 2023 IL 127801

7) Bloomberg Law(2022. 6), “Insurers Add Biometric Exclusions as Privacy Lawsuits Pile Up”; Lexology(2023. 3)

8) 기존 기업보험에 고용 관련 관행(Employment-related practices), 정보 접근 및 공개(Access or Disclosure)에 대한 면책이 존재하나, BIPA를 근거로 한 대부분의 법률 해석에서 해당 면책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아 생체인식정보에 특정한 면책을 추가함